

전남도 산하기관장 연임 · 공모 없을 듯

전남개발공사 연임 조건 불충족 · 여성프라자 대행체제

새로운 도지사 체제서 인사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 지배적

내년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서 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도 산하기관장의 연임 및 공모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중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3곳이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내년 1월25일, 여성프라자 원장은 내년 1월25일,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내년 5월31일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장에 대한 연임 및 공모 여부가 도청 안팎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데다,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등으로 인해 인사 시기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영평가 성적 등에서 연임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경영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성적을 받거나 3년 연속 우수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00억원 이상 경영 성과가 있으면 조건에 충족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사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33억원에 일괄 매각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성사로 주장하지만, 올해 계약금 형식의 50억원만 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의 계약서에는 미래에셋이 전남개발공사에 2019년 950억원의 중도금, 2024년 2430억원을 완납기로 돼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의 1000억원 이상 경영성과 주장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공개입찰가원 등에 문의한 결과 성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임이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모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지만, 새로운 도지사 체제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내년 1월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여성프라자 원장의 경우 새로운 도지사가 오기전에 공모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그 자리는 여성가족정책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그만둔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도 공모할지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오창원 전남정비문화산업진흥원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김정환 기자



마을 어르신께 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 광산구 비어청년회(회장 박익성)는 지난 3일 '사랑의 연탄' 1500장을 이웃에게 전달했다. 비어청년회원 43명은 이날 비아동 홀몸어르신 9세대를 직접 찾아가 연탄을 배달했다. 최정아 비어청년회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업 충실해야”

최영호, 이용섭 후보 우회적 비판 후보자간 연대엔 “시기상조” 난색

내년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최영호 남구청장이 같은 당 유력 주자인 이용섭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정장은 4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이 부위원장을 겨냥,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사람”이라며 “본인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본업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장·차관급 고위직을 5차례나 지낸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활동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광주시장 출마에 견제구

를 날렸다. 일부 후보자간 연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출마 여부에 대한) 이 부위원장의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후보자간 경쟁구도만 비워둘 경우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순 있지만 후보자간 연대는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민형배, 최영호 정장과의 연대 또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이른바 ‘삼박이론(論)’을 언급한 데 대한 정치적 거리두기로 읽힌다.

추준성 기자

광주시, 2017년산 벼 보급종 신청 접수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년 봄에 파종할 2017년산 벼 보급종을 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내 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받는다.

정부 보급종은 엄격한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검사규격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 자가재종 종자보다 증수 효과가 6~65% 높다.

총공급량은 116이며, 신청대상 품종은 2018년도 공공비축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새일미, 신동진 외에 미품, 동진찰, 영호진미, 새누리, 윤광 등이다.

공급가격은 수매가격이 결정되

는 1월 중 공고되며, 보급종은 내년 3월30일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농업인상담소가 없는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주민센터는 도산동, 비아동, 송전동, 송정2동, 신창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동 월곡2동, 하남동 등 11곳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 새일미, 윤광의 공급량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청춘세프 육성과정 수료식 가져

광주 동구가 지난 2일 동구청청원센터 대강당에서 '2017 청춘세프 육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동구는 그동안 혼밥, 혼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간편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2017 청춘세프 육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청춘세프 요리대회'를 통해 선발한 10명의 청춘세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10회의 교육 및 실전 인턴십을 진행했다.

서구, 주민없이 방치된 노후간판 철거 완료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후간판 철거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없이 방치되고 있는 노후간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영업장을 폐업 또는 이전하게 된 경우 광고주가 간판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간판들은 정비가 되지 않아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간판이 추락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10월 '주민없는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양동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중 장기간 방치된 업소 50여곳을 선정해 후 철거 및 정비를 실시했다.

남구, 자원봉사 전국 최고점 대통령상 받는다

광주 남구가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고점을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는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5일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 남구는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노력으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남구가 자원봉사 분야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은 각 마을별로 작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와서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총 7개동에 동 자원봉사센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저소득층 반찬 나눔 및 주막밥 나눔, 치안 순찰, 복구역사 및 환경정화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개최

광주 북구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경영의 장을 마련한다.

북구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7개 동별 프로그램 공연을 펼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27개동 주민자치센터 상호간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경연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주민회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작품전시회와 경영대회 두 분야로 나누어 펼쳐진다. 경영대회는 퓨전국악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27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50여명이 참여해 댄스스포츠, 한복, 통기타 연주 등 그동안 배운 솜씨를 마음껏 선보이는 흥겨운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광산구, 복지사업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

광주 광산구의 현장 중심 복지 사업이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광산구의 민관복지연대망에 주목했다. 국가 복지의 한계로 생긴 사각지대를 광산구가 민간 영역과 꾸린 촘촘한 복지망으로 대처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가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7년 1856 상속안정승인
사망자 : 임동준(2003-110917)
최후주소 : 광주북구 삼죽로202번길 34-4 411호(송봉동)

위 망 임동준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2월 5일

공고인 : 임영희 임영미, 주 소 : 광주 남구 봉산중앙로8, 107동 204호 (송전동, 쌍용스윗나눔)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1월 29일
공고기간 : 2017. 12. 5 ~ 2018. 2. 6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7년 1814 상속안정승인
사망자 : 최대훈(55085-159817)
최후주소 : 광주광산구 비아로185, 101동 1409호(비아동, 하남지구호반아파트)

위 망 최대훈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2월 5일

공고인 : 서미순, 최승희, 최윤형, 주 소 : 광주 광산구 비아로185, 101동 1409호(비아동, 하남지구호반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1월 30일
공고기간 : 2017. 12. 5 ~ 2018. 2. 6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